

SNS에서 산림청 소식을 만나보세요.

- ▶ youtube.com/forestgokr
- 📷 instagram.com/forest_korea
- 📘 facebook.com/forestkorea
- 🐦 twitter.com/forest_news



FOREST AT HOME

집안에 들인 숲



내가 정원 위로 눈길을 보내면, 정원은 단지 황홀해하거나 혹은 무관심한 시선을 던지는 이방인을 보듯이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는다. 정원은 나에게 무한히 많은 것들을 준다. (중략) 그 모든 것들이 내 친구였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나무들 가운데 한 그루라도 잃어버린다면 나한테는 친구 한 사람을 잃는 것과 같았다.

- 헤르만 헤세, 『정원 일의 즐거움』 중에서

P R O L O G U E

헤르만 헤세는 우리에게 『데미안』의 작가로 잘 알려진 소설가다. 반전주의자였던 그는 1, 2차 세계 대전을 모두 겪으며 사회와 가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의 고단한 삶을 보듬어 준 것은 그 어떤 이도 아닌, 바로 그의 정원이었다. 그가 노벨상을 받은 지 8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여전히 식물에서 무한한 희망을 얻고 있다. 어쩌면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팍팍해진 우리 삶에 더욱 절실한 위로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정원을 집 안으로 들고 내 방에서 숲을 만난다. 가만히 식물을 바라보고 꽃을 보며 자연으로 돌아간 듯 위안을 얻는다.



CONTENTS

2022 JANUARY + FEBRUARY

04

Prologue

08

숲속 다이어리

집안에서도 풀멍이 필요해

10

숲을 거닐다

공간에 들이는 여유 한 그루

– 틸테이블

16

숲을 만나다

무기교의 미학과 만나다

– 디자이너 양태오



22

숲의 발견

홈 가드닝도 스마트하게

– 알아서 키워주는 식물 가전

24

오늘의 숲

한 해를 시작하는 겨울과 마주하다

– 덕유산

30

어떤 질문

식물은 무조건 남향이 좋다?

– 식물에 대한 오해와 편견

32

숲 크리에이터

식물과 파도가 만나면

– 식물 크리에이터 그룹, 파도식물

36

하루의 끝은 산책

걸으며 깨닫는 것들

– 서울숲

40

달콤한 숲

한겨울의 깊은 맛

– 꽃감과 홍시

42

숲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 사회적 기업 업사이클링 브랜드, 젠니클로젯

46

숲의 내일

일상에 숲을 들이다

– 실내 정원 사업



50

숲속 우체통

52

숲이 전해온 소식



www.forest.go.kr

이번호 〈Magazine 숲〉을
휴대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
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
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agazine 숲〉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2년 1월 28일 발행 산림청
기획 산림청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T. 042.481.8843 / 042.481.4074
편집 ·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집안에서도 풀멍이 필요해



회사에서 모니터만, 지하철에서는 스마트폰만 보다 집에 왔습니다.

온기 하나 없는 집에는 휘커스 움베르타가 고개를 쭉 빼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햇빛이 그리 많이 들지 않는 이 집에서도 씩씩하게 반짝이며 잘 자라주는 고마운 아이.

가방만 놓은 채 그대로 앉아 온종일 혼자 있었을 내 친구를 찬찬히 바라봅니다.

삭막했던 눈동자는 초록 잎으로 가득 찹니다. 싱그러운 풀 내음도 느껴집니다.

이제야 눈과 머리에 한 줌 여유가 밀려옵니다. 가만, 지난번 가지치기를 해주었던 곳에

빼꼼히 새순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가구만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은 공허함이 흐릅니다. 식물이 있는 공간엔 생명이 가득하죠.

한없이 초록을 바라보는 지금은 나의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내 기분이 초록이 되는 이곳

틸테이블

우리의 주거 공간은 사람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진화되어 왔다. 하지만 틸테이블은 이러한 생각에 의문을 던진다. 과연 그러한 공간이 사람에게 진정 이로운 공간일까? 반대로, 식물이 살기 좋은 공간이라면 응당 사람에게도 유익한 공간이 아닐까? 식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틸테이블을 소개한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틸테이블



1

회색과 녹색이 공존하는 공간

요즘 트렌드세터들의 핫플레이스를 꼽자면 성수동이 빠질 수 없다. 그리고 회색으로 낡은 동네, 폐공장이 즐비한 성수동에 초록으로 대비되는 공간 틸테이블이 있다. 틸테이블의 오주원 대표는 약 6년 전, 성수동이 지금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전에 공장이 많은 성수동의 독특한 느낌을 주목했다. 그리고 그곳에 식물의 따뜻함과 철제의 차가움이 혼재된 공간을 만들었다.

몇 번의 리모델링 끝에 현재 매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매장 1층에선 식물의 다양성을 보여주 고자 팝업이나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식물의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것을 선보이기 위한 공간이다. 약 3개월~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2층은 판매를 위한 공간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식물의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

어를 주는 공간이다. 집의 서재나 거실의 느낌이지만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폿을 만들어 놓았다.

지하엔 가드닝 아카데미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나 코로나19로 활용하지 않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올해는 가드닝 아카데미를 부활시키려고 추진 중이다.

크고 작은 행복이 모여

틸테이블은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를 여러 건 진행했다. 해외에서 식물을 이용한 콜라보레이션 전시를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식물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어 현지에서 수급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느낌을 내게 하는 식물을 현지에서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 여러 프로젝트를 모두 성

01

라이마스×틸테이블의
〈시즌스 그리팅,
시즌스 라이팅〉 전.

02

2021 홈테이블
데코퍼어에 틸테이블이
연출한 젖나무 숲.

03

틸테이블은 식물로
공간의 여유를 주는 데
일조하고 싶다.



2

회색으로 낡은 동네, 폐공장이 즐비한 성수동에
초록으로 대비되는 공간 틸테이블이 있다.



3

공식했을 때의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큰 성공 외에도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식물과 함께하며 오랜 친구 같은 고객도, 그들과 함께했던 소소한 추억도 많다. 한번은 60대 여성 고객이 무늬방갈고무나무 화분 하나를 들고 찾아왔던 적이 있다. 사별한 남편이 20년간 키우던 식물인데, 분갈이를 해달라고했다. 중요한 식물이니 잘하는 집을 찾아왔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하지만 그때가 겨울이었다.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 분갈이하기는 했으나 분갈이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 한참을 애지중지하며 지켜보았는데 안타깝게도 몸살이 났다. 너무 당황해 화분을 맡겨달라 부탁한 뒤 오주원 대표가 집에도 데려가고 가지치기도 하며 애지중지 아껴주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노심초사한 끝에 결국 건강해졌고, 고객의 덕으로 갖다주었더니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고객이 지금까지도 2~3년에 한 번씩 사진을 보내주는데 가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반가운 마음이 든다.

여유를 주는 공간이 되고자

오주원 대표는 원래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었다. 플랜테리어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비주얼을 디자인하는 사람답게 식물은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도구라는 생각에 조금 더 치중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식물을 사 갔던 고객이 얼마안돼 시든 식물을 되가져오는 일들이 생겼다. 그때부터 오주원 대표는 '왜 식물이 죽을까?' 의문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식물을 가지고 다양한 테스트도 해보았다. 그 결과 공간과 합이 맞는 식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식물이 실내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후로 실내에서 클 수 있는 식물이 무엇이 있을지 찾게 되었고 연구하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신생 업체는 그런 포인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비주얼로만 간다면 그렇죠. 하지만 식물과 공간의 궁합이 잘 맞으면 깊은 울림이 생겨요. 깊이 있는 명품과 외적인 아름다움만 치중한 물건과는 차이가 있듯, 식물도 멋지게 크면 기쁨이 있습니다. 틸테이

04

젠틀몬스터의 상하이 플래그십 스토어.

05

대상트에서 주최한 <파도, 착한 움직임, 그리고 우리>전에 작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06

틸테이블은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기품있게 지라는 식물을 키우고 싶다.

틸테이블은 코로나19와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작은 숲의 여유를 주는 공간이 되고 싶다.

블은 식물이 기품있게 크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열렸던 2021 홈테이블데코페어에서 틸테이블의 전시가 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었다. 오주원 대표는 오랜 팬데믹으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동네 뒷산의 잣나무 숲을 떠올렸다. 그곳을 걸으면 수천년동안 떨어져 쌓인 잣나무 잎을 밟을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감촉에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코끝을 스치는 잣나무의 신선한 내음, 온몸으로 느껴지는 피톤치드의 상쾌함. 이 기분 좋은 장소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그래서 전시 공간을 꾸몄고 사람들의 전시 공간에 잣나무 숲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을 연출해 많은 사람의 호평을 받았다. 영화 <카모메 식당>에서 핀란드인이 항상 여유로운 이유를 궁금해 하는 마사코에게 토미는 대답한다. 숲이 있기 때문이라고. 틸테이블은 코로나19와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작은 숲의 여유를 주는 공간이 되고 싶다. 머물고 있는 동안 만이라도 초록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 말이다. 🌿



무기교의 미학과 만나다

디자이너 양태오



SPECIAL INTERVIEW

TEO YANG



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면 인터뷰가 조심스럽다고 했다. 어려운 시국임을 고려해 전화 인터뷰로 그와의 만남을 대신했다.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된 시간에 그에게 전화를 걸자 편안하고 부드러운 음성에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그의 작품처럼 기교를 부리지 않았으나 멋이 느껴졌고 기품이 있었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태오양스튜디오

“양태오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한국의 미학’을 만들며 전 세계 공간의 다양성에 기여했다. 그는 과거를 현재로 옮기는 데 탁월하다. 한국 전통문화에서 힌트를 얻어 현대적인 맥락으로 잘 디자인한 공간에는 그의 모토인 ‘미래 속 과거’가 잘 표현돼 있다. 현대와 전통을 혼합하는 그만의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다.”

—파이돈 프레스—

헤리티지라는 키워드

양태오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창 주목받고 있는 디자이너다. 세계 3대 아트 전문 출판사로 명성이 높은 파이돈에서 세계 최고의 동시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100곳을 엄선했는데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태오양스튜디오가 선발되었다. 가장 세계적인 디자이너 중 한 사람인 그는 가장 한국적인 것에 집중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전통 철학과 라이프 스타일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거의 다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소유에 대한 개념이 더 확장될 수도 있고요. 한국 전통 철학에선 꼭 내 것이 아니어도 내 것이 될 수 있고, 기교를 많이 부리지 않아도 기교가 될 수 있는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의 전개들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도 국내에서 수학하던 시절엔 교육 과정 중 전통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다. 교육 시스템이나 기본적인 사회의 틀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전통이 무엇인지, 전통문화의 아름다운 부분이 무엇인지 놓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많은 이들이 열광하는 명품 브랜드는 헤리티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무리 모던하고 세련된 브랜드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날 아침에 바로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기나긴 과정을 거쳐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헤리티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했다.



01
양태오가 리노베이션한
국립경주박물관 로비.

02
무기교의 기교를
표방하는 그의 가구,
이스턴에디션.

03
영국을 대표하는 실크 벽지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한
작품. 궁궐도를 재해석했다.



KOREAN HERITAGE

지식과 철학의 집약체, 한옥

양태오는 시카고 미술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뒤 캘리포니아의 아트센터 디자인 대학에서 환경 디자인을 공부했다. 그 후 네덜란드로 건너가 암스테르담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스와 함께 일하며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세계적인 감각을 익혔다. 한국에 돌아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나 서울 디자인 올림픽, 서울 디자인 위크 등 여러 전시에서 그의 가구를 소개하고 서울 스퀘어 숍 등에서 다양한 실내 그래픽 디자인을 선보이며 그의 필모그래피를 채워나갔다. 또한 북촌 한옥마을에 백 년 된 한옥 '청송재'를 개조해 작업실 겸 거주공간으로 사용하며 한옥 인테리어 붐을 일으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많은 디자인과 예술을 보며 내가 앞으로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 알아가려면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알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모든 지식이나 철학을 담는 집약체는 바로 한옥이었습니다. 특히나 공간 디자이너로서 한옥을 공부하고 한국인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면 굉장히

동시대적이면서도 정답에 가까운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청송재에 기거하며 한옥의 장점을 매일 체감하는 중이다. 스위스의 유명 건축가 르코르뷔지에가 '집은 살기 위한 기계'라고 말했듯, 그는 한옥이 그 말에 꼭 맞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한옥은 사람들을 쉽게 분리할 수도, 모을 수도 있다. 자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하는 동시에 자연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공간이었다. 한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목소리에 생기가 느껴진다.

자연이 지닌 신기한 힘

"한옥에 사용되는 목재, 돌, 기와의 흙 같은 자연 소재가 주는 편안함이라는 공간의 DNA가 존재합니다. 내가 마치 이 한옥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참선하는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분이 이곳에 오면 명상에 잠기게 되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계시기도 하고요." 자연은 참 신기한 힘을 지녔다. 보면 볼수록 겸손해진다. 자연 앞에서 굉장한 자유를 느끼기도 하고





4

자연을 통해 위안을 얻기도 한다. 양태오는 이런 자연의 매력에 오롯이 집중했다. “한옥 수리 과정 중 오래된 나무를 깎아내는 ‘깎기’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색상이 변한 걸 부분과 벌레 먹은 곳을 얇게 깎아내면 속살이 나오고 보존된 향이 함께 퍼집니다. 이를 통해 백 년 이상 된 집인데, 이 깎기 한번을 통해 또 한 번의 백 년이라는 시간을 얻을 수 있구나. 정말 맛있고 환상적

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천년을 산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백 년 동안 잘 자라고 오백 년 동안 한옥에 와서 쓰인다는 것이다. 양태오는 이 집에서 그 사실을 체감한다. 또한 나무를 보며 이 집이 어디에서 왔는지 느껴지며, 존경심이 많이 생겨난다. ‘이 목재가 어디선가 오랜 시간 자라서 백 년 전 누군가에 의해 가공이 되고, 이 한옥에 와서 집으로 만들어

졌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구나’라고 느낄 때는 경외감마저 든다. 그래서 그는 한옥으로 이사 온 이후에 이전보다 많은 목재를 그의 작업에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무만이 주는 색상과 다양한 수종의 질감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가 바뀌고, 나무가 주는 감성의 가능성은 끝이 없음을 느낀다.

과거의 콘텐츠를 동시대에 보여주다

그는 한가지 작업만 하지 않는다. 작년엔 새롭게 가구 브랜드를 론칭했다. 화장품 사업에 이어 내년엔 향(香) 브랜드도 시작할 계획이다. 그가 이렇게 다양하게 디자인 범위를 넓혀가는 이유는 과거의 콘텐츠를 동시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겐 단순히 예쁜 공간이 목표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때는 화장품, 어떤 때는 향 등 다양한 범위로 뻗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한국의 미학을 독특하고 세계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이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통문화를 세계적인 언어로 만들 수 있을지,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요.” 그가 살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중 하나는 계절의 변화다. 봄에는 새로운 색이 나오는 것을 느끼고 싶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과 매미 소리를 느끼고 싶다. 단풍이 드는 모습과 낙엽이 떨어졌을 때의 초가을의 정취도 느끼고 싶다. 그래서 그는 종종 그가 사는 북촌 한옥마을과 가까운 북한산으로 간다. 그 과정을 통해 항상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산에서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것이 그가 삶의 에너지를 얻는 소박한 방법이다. 의상과 말투에 잔뜩 힘을 주거나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유명인사들과는 결이 달랐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양태오와 그의 공간, 가구는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미필담(大味必淡). 예로부터 정말 좋은 맛은 반드시 담백하다 했다. 그의 생각과 작품이 정확히 그러했다. 숲



5

04

한옥에 기거하며 원초적인 소재를 마주하고 소통하며 집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난다는 양태오.

05

한국 대표 갤러리중 한 곳인 국제갤러리의 리노베이션을 진행했다.

홈 가드닝도 스마트하게

알아서 키워주는 식물 가전

생명이 가득한 집에는 온기가 돈다. 요즘 우리는 그 온기를 기대하며 집안에 식물을 들이는 것이 아닐까. 반려 식물뿐 아니라 무공해 야채를 재배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다. 이젠 우리의 식물 기르기를 한결 수월하게 해줄 스마트 기기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SMART HOME



1

블룸엔진 에쓰팟

원에 전용 LED가 어두운 실내에서도 식물 성장에 적합한 빛을 제공해 광합성을 촉진한다. 무소음 자동 급수 시스템으로 약 10일 동안 적당한 양의 물이 자동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식물 집사의 물시중이 한결 수월해진다. 비스페놀A가 없어 반려 식물뿐 아니라 식용 허브나 채소 재배에도 적합하다.



2

이나프 가정용 셀프 스마트 야채 재배기

상추, 바질, 토마토, 오이 등 20종류 이상의 야채와 다양한 식물 재배가 가능하다. 수백 개의 스펙트럼 LED 시스템은 낮과 밤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자동 물순환 펌프로 편리하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반강제적으로 늘어난 실내활동으로 반려 식물 인구가 급증했다. 식물을 기른다는 전통적인 개념은 퇴색하고, 홈 가드닝이나 플랜테리어, 반려 식물 등 더욱 정서적인 개념이 확장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미 대형마트에는 식물·원에 관련 상품이 인기 코너로 자리 잡은 지 오래. 여기에 식물 전용 호텔부터 식물병원 등도 생겨났다. 이러한 인기는 가전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식물 키우기에 자신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식물 재배기를 소개한다.

GARDENING



3

스마트이 LED 식물 조명

유리창을 통과하는 빛은 자외선이 많이 차단되어 생각보다 더 많은 햇빛이 필요하다. 이 제품은 자연광과 비슷한 풀 스펙트럼 LED 식물 조명을 탑재해 식물 성장에 도움을 준다. 또한, 식물 성장 단계에 맞게 4단계 밝기 조절과 3단계 타이머 조절이 가능하다.



4

오늘식물 기프트패키지 식물재배기

흙을 대체하는 그로잉 스펀지는 캐나다의 천연 비료로 만든 친환경 배지로 벌레 걱정 없이 쉽고 간단하게 식물 기르기가 가능하다. 기프트 패키지에는 취향에 따라 세 종류의 씨앗 묶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식물 성장에 최적화된 영양액도 포함되어 있어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다.

한 해를 시작하는 겨울과 마주하다

덕유산

한 해의 시작과 끝엔 늘 겨울이 있었다. 긴 문장에서 숨을 고르는 침표처럼, 겨울은 시간의 마디를 구분 짓는 단락 같다. 그래서, 눈 쌓인 겨울을 마주할 때면 흡사 거대한 한 장의 백지를 받아든 기분이 든다. 무슨 이야기든 적고 싶어진다. 이번 겨울, 지난 이야기를 맺고 올해의 첫 문장을 적으러 덕유산으로 향해보았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Studio KENN



한 해의 시작과 끝

모처럼 겨울다운 폭설 소식이 들려왔다. 폭설에 한파까지 겹쳐 한껏 겨울 분위기를 내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았다. 운이 좋다면 한가득 쌓인 눈과 함께 가지마다 한껏 핀 상고대를 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폭설이 내린 인근 지역 중 겨울 분위기를 내기엔 덕유산이 좋다는 소식을 들었다. 넉넉히 쌓인 눈 덕에 세상이 온통 새하얗게 보일 정도라고, 그 말이 마음을 더 부추겼다. 겨울이 다 가기 전 마지막 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짐을 꾸렸다. 잦은 폭설이 잠시 사그라들 즈음에서야 덕유산을 찾았다. 덕유산 초입부터 알뜰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층층이 쌓인 눈이 바람에 쓸려 분분히 흩날리고 있던 거였다. 도대체 이 만큼의 눈은 어떻게 내리는 걸까 괜히 궁금해진다. 또 이 정도의 양이 쌓이는

데에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는 지도. 이곳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다는 말보다 쌓이고 있다는 표현이 더욱 어울릴 듯했다. 덕유산은 남부 지방임에도 적설량 많기로 유명하다. 겨울철이면 고개마다 빈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통 새하얗다. 눈이 알뜰 솜 없이 내리기도, 한나절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눈을 왈칵 쏟아낼 때도 있다. 더욱이 매섭게 찬 바람이 불 적이면 가지마다 핀 상고대가 장관을 이룬다. 겨울이면 북서풍이 밀려들어 상고대를 가득 파우는 강원도 일대의 고지대 능선보다도,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올 즈음이면 산행객들은 버릇처럼 덕유산 날씨를 살핀다. 상고대가 피기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본격적인 산행에 나서기 전, 이른 오전부터 산행객들이 분주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평균



영상으로도
만나보세요

경사도는 낮지만, 고도가 제법 높아 향적봉까지 도달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을 걸어야 해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며칠 전 폭설이 내린 참이고 상고대가 길 정도의 날씨가 산행 중 자칫 미끄러져 화를 당할 수도 있다. 간단히 몸을 풀고 산에 발을 들이기 전 깊게 숨을 내쉬자 입김이 뿌옇게 새어 나온다. 몸 안의 체온과 계절의 체온이 만나 하얗게 번져가고 있는 거였다.

하얗게 번지는 계절

오전 시간임에도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혹여 날이 풀리며 눈이 녹을까 염려해 일찍부터 산행에 나선 것일지도 몰랐다. 돌아오는 산행객들의 차림을 살펴보니 머리와 어깨 위에 눈이 한 움큼씩 쌓여 있었다. 눈을 실컷 맞고도 털지 않고 고스란히 몸에 이고 온 것을 보니 눈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그러니 이른 시간부터 산행에 나선 것이겠지. 눈이 녹는 과정을 몸으로 겪어보는 일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겨울이 다 가기 전 모처럼 눈을 한껏 적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안내소를 시작으로 동업령까지 경사가 제일 높다.

01

덕유산은 적설량이 많기로 유명한 산이다.

02

매섭게 찬 바람이 불 때는 더욱 아름다운 눈꽃을 볼 수 있다.



동업령을 지나면 대체로 완만한 평지 수준의 오르막이라 큰 어려움은 없다. 덕유산 초입에 들어서 적당히 걷는데 눈이 제법 녹아 있었다. 겨울 기분을 내기엔 모자란 감이 있었다. 폭설이 그친 잠깐 사이, 덕유산은 발끝부터 천천히 겨울 티를 벗고 있었던 거였다. 괜히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걸음이 빨라지고 몸에 열이 올랐다. 동업령 부근까지는 속력을 내 오르는 게 여러모로 좋을 듯싶었다. 한낮의 별을 받아 눈이 금세 녹기라도 하면 아쉬울 것 같았으니까. 예로부터 길이 높고 멀어 혼자 넘기는 힘들다고 하여 동업령(同業嶺)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면데. 큰 어려움은 없다지만 경사로를 연신 무리하여 걸어 오르니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눈길이라 발에 절로 힘이 들어가 그런 모양이다. 거뜰 오를수록 눈이 제법 쌓인 게 보인다. 운무도 짙다. 사방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한층 뿌옇게 눈에 비친다. 이렇듯 겨울은 세상을 온통 순하고 연하게 배색한다. 사람들은 안개를 헤치고 좁은 길을 따라 종종걸음으로 들어갔다. 비집고 향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다.




동업령에서 고비를 넘기고 백암봉으로 향하자 경사가 한결 완만하다. 하지만 쌓인 눈의 깊이가 깊다. 곳곳에 발이 빠져 움푹 파인 흔적이 가득하다. 눈이 거둬 내리고 내려 정강이 부근까지 닿았다. 두꺼운 눈은 세월이 켜켜이 쌓인 시간의 퇴적물 같다. 며칠간 쉬지 않고 내려왔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듯했다. 쌓일 수 있다 싶으면 눈은 어김없이 한가득 쌓여 더미를 이뤘다. 그렇게 빼곡히 채워진 눈더미들은 길옆에 벽처럼 세워져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간 곳과 지나가지 않은 곳의 경계를 나눴다. 산행객들이 지나간 쪽으로는 눈길이 완만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한바탕 눈이 쏟아지고, 녹고, 굳기를 반복한 탓에 땅은 울퉁불퉁 굳어 있었다. 걷기에 좋은 길은 아니었으나 눈 쌓인 길은 걷고 싶은 마음이 들기에는 충분했다. 향적봉에 이르자 눈 쌓인 주변 경치가 눈에 들어온다. 가지마다 설화처럼 하얗게 얼어붙은 상고대도 선명하다. 길을 따라 좌우로 빼곡하게 채운 설경을 보자니 현실감이 멀어지는 기분마저 든다. 이따금 자연에서 느끼는 경외감이 마음속에 술렁였다. 주위는 고요했다. 세상의 모든 경계를 없애며 내리는 눈은 세상을 침묵에 잠기도록 만들었

03
하얗게 표백된 풍경은
몽환적인 느낌을 연출한다.

04
겨울이면 덕유산의 설경을
보려는 등산객들로 더욱
붐빈다.



다. 눈이 쌓여 산을 덮은 게 아니라 눈이 호수처럼 고여 산을 잠근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한동안 서서 설경을 천천히 바라봤다. 하얗게 표백된 풍경은 현실인 듯, 환상인 듯 모호한 기시감을 풍겼다. 세상의 입체감이 조금 흐릿해 보였다. 우리가 지나온 길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선명한 것이 없었다. 새하얀 풍경 위로 가득 낀 운무가 그런 감상을 더욱 보탬다. 겨울에는 한 해의 끝과 시작이 모두 들어있다. 겨울은 시작과 끝의 반복에서 어김없이 세상을 하얗게 눈으로 덮는다. 그것은 마치 한 해의 시간을 덮는 것 같이 느껴진다. 미처 떨치지 못한 미련과 남은 아쉬움, 그리움이나 슬픔까지 모두 정갈한 침묵 속에 가라앉혀 찾아들게 만든다. 그래서 겨울은 마지막으로서의 쓸쓸함과 또 다른 시작의 설렘이 공존한다. 외롭지만 포근하고, 그립고도 아름답다. 한 계절을 두 해에 걸쳐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겨울 사이 지나온 한 두 달간의 시간은 벌써 아득하게 먼 과거처럼 느껴진다. 덕유산에서 늦겨울을 한껏 감상하고 나니, 그제야 한 해를 무사히 보내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렇게 다가온 한 해를 기쁘게 맞는다. 

덕유산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걸으며 만나는 눈꽃도 아름답지만
여유롭게 곤돌라에 앉아
내려다보는 설경은 또 다른
느낌으로 즐길 수 있다.

위치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운행시간
평일 10시~16시
금요일 10시~16시 30분
토요일 9시 30분~16시 30분
일요일 9시 30분~16시
*상행 기준, 하행은 마감시간 +30분

왕복권
대인 18,000원
소인 14,000원

문의
063-322-9000

식물은 무조건 남향이 좋다?

식물에 대한 오해와 편견



Q1.

식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키워야 좋다?

A1.

어느 정도는 맞다.

식물이 에너지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광합성이다.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며 판매하는 식물들도 막상 빛이 없는 곳에서 키우면 원래 모양과 다르게 자란다. 식물 입장에서 보면 잘 자란다고보다는 버틴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반음지에서 잘 자란다고 알려진 몬스테라의 예를 들어보자. 야외 직사광선에서 잎이 타들어 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실내 창가에서는 습도나 다른 조건이 충분할 경우 햇빛만으로 잎이 마르지 않는다. 요즘 창문 유리는 자외선 차단율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알로카시아나 파키라, 산세베리아 같은 종류도 적은 햇빛에서도 잘 ‘버틴’ 것이지 그것이 최적의 환경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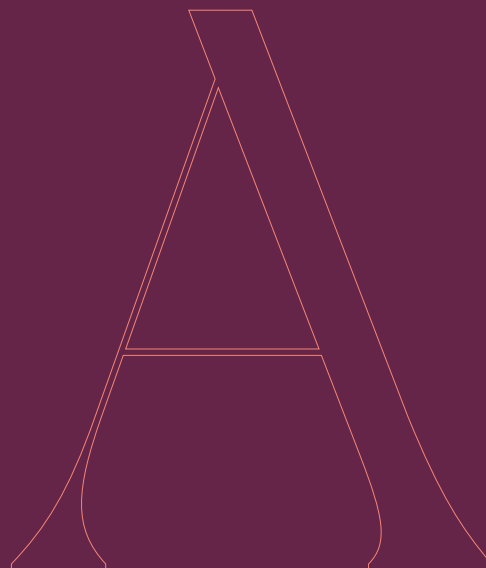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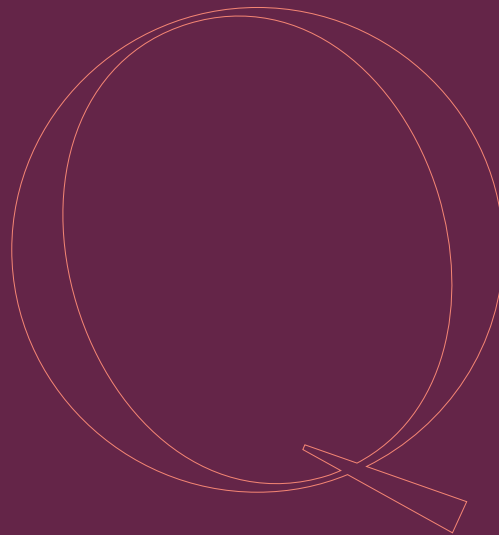
Q2.

화분이 클수록 식물이 더 빨리 자란다?

A2.

오해

실내 식물은 화분을 무조건 큰 것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잘 자라지 않는다. 특히 성장이 더디거나 멈추는 겨울은 물이 적게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이때, 화분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면 여유분의 물을 항상 머금게 돼 과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분갈이를 해야한다면, 양성하게 성장하는 봄에는 원래 화분 크기에서 양쪽으로 약 2~4cm씩 큰 화분으로 바꿔주길 추천한다. 그래도 그 안으로 뿌리가 금방 가득 차게 성장하기 때문에 과습의 우려가 적다. 겨울에는 분갈이를 추천하지 않지만, 뿌리가 너무 꽉 찼을 때는 양쪽으로 약 1cm씩만 더 큰 화분으로 바꾸주고 물조절에 특히 신경써야한다.



잎이 말랐다고 무조건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음지 식물이라고 꼭 햇빛이 없어도 되는 것도 아니다. 초보 집사의 오해로 애꿎은 반려 식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식물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를 준비했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도움말 허밍그린 식물상담소 이강미 대표



Q3.

식물 잎 끝이 갈변하는 것은 물이 부족해서다?

A3.

딱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잎끝이 노랑게 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 번째는 흔히 생각하는 대로 물을 조금 주어 흠이 건조한 경우다. 이럴 때는 물론 적절한 양의 물을 주면 해결된다. 두 번째는 공기가 건조할 때다. 실내 환경은 여름에 에어컨, 겨울엔 난방 등으로 건조해지기 쉽다. 실내 습도가 20~3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 때는 잎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초보자가 쉽게 생각하기 힘든 세 번째는 물이 너무 많을 때다. 흠에 물이 마를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물을 주다 보면 뿌리가 숨 쉴 시간이 없어 물러져 버린다. 물러진 뿌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물을 줄기로 올릴 수 없고, 잎이 마르는 것이다.



Q4.

식물에 병이 들면 비료나 영양제를 줘야 한다?

A4.

원인 파악이 먼저다.

식물이 시들고 병들어 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병 때문인지 몰라 방치하다 죽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벌레가 생겼는데 벌레를 볼 줄 몰라 힘내라고 영양제만 주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영양제나 비료를 준다고 다 낫는 것은 아니다. 뿌리가 상해있을 때 흠에 영양제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때는 영양제를 물에 희석해서 잎에 뿌리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식물이 아플 때는 우선 왜 아픈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수다. 감기 걸렸을 때 무턱대고 소화제를 먹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padosikmul



♥ 7,777 likes



바닷가에서 자라는 모감주나무는 그 씨앗이 바다에 떨어져 파도를 타고 간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다른 땅에서 뿌리를 내린다. 파도식물은 이 모감주나무에서 이름을 떠올렸다. 떠날 수 없는 나무와 정착할 수 없는 파도가 만나 이루는 기적. 식물 크리에이티브 팀 파도식물은 이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과 모감주나무의 기적을 꿈꾼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파도식물

식물과 파도가 만나면

식물 크리에이터 그룹, 파도식물

톡톡 튀는 개성과 아이디어로 무장하다

광고 회사에 다니며 디자인과 카피로 사람을 설득하던 복창민과 조미은은 사람들과 식물로 소통하길 원했다. 그리고 다양한 파도의 일렁임을 이겨내고 '파도식물'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팀은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대중과 즐겁게 소통하는 중이다. 창의력이 없으면 존재하기 힘들다는 광고인 출신답게 다양한 작업에서 식물을 감각적으로 풀어냈고, 연달아 이어지는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이들이 대중에게 처음 이름을 각인시킨 것은 한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이었다. 파도식물은 시그니처 컬러인 코발트블루 화분을 5백 개 제작해 쌓아 올렸다. 이 전시에서 그들은 패션 브랜드의 리소트룩을 다양한 식물들과 조화롭게 연출했다. 또한 로봇 청소기를 타고 다니는 식물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마치 휴양을 즐기는 듯한 재미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내기도 했다. 이후, 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영재 지원 재단의 학생들과 함께했던 프로젝트엔 3천 개가 넘는 돌을 코발트블루 컬러로 채색하고 조립한 설치미술을 선보였다. 또한 '내가 식물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세상은 어떤가요? 저는 발이 묶여서 궁금해요', '왜 날 키워?' 등 학생들이 했던 재미있는 질문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전시했다. 이외에도 드라마, 뮤직비디오, 칼럼 등 전방위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파도식물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처럼

그들의 SNS에는 ‘효창동에서 일어나 한남동을 넘어 제주에 도착한 파도’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이들의 여정은 스승님과 함께 설립한 광고 회사에서 시작되었다. 스스로 월급을 만들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 두 젊은이는 생존을 위해 회사차였던 작은 승합차에 꽃을 심고 졸업식 꽃 장사를 시작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월세는 해결했으나 흥미가 생겼다. 방에서 식물을 길러 당시 살고 있던 효창동 해방촌에 주말마다 좌판을 펴 식물을 팔았다. 그 과정에서 식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것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미은씨의 작업실을 소름으로 만들었고 파도식물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했다. 한남동의 2평 남짓한 공간을 80년대 영화관 매점이라는 독특한 컨셉트의 ‘파도식물1.5’라는

01
제주 ‘디앤디파트먼트’에 위치한 파도식물의 ‘툼’.

02
트램펄린과 식물을 하나의 세트 구성한 작업, ‘카방방’.

소름으로 꾸몄다. 이젠 제주로 공간을 옮겨 그들의 예술과 사업 모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기존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식물 관련 프로젝트는 광고보다는 인테리어나 공간 디자인과 더욱더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파도식물은 그런 편견을 뛰어 넘는다. “전통적인 조경의 영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크리에이티브인 시대입니다. 저희가 광고를 할 때 디자인과 카피로 아이디어를 풀어냈다면 현재는 표현의 언어가 식물이라는 점만 달라졌을 뿐 나머지는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역의 한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되 항상 중심에 두는 질문은 있다. ‘이것은 파도식물 다운가’. 어떤 영역의 결과물이든 가장 작은 디테일에서부터 전체 그림까지 놓고 보았을 때



‘아, 누가 봐도 이건 파도식물이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그런 것들이 모여 파도식물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리라.

식물과 함께한 공간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현재는 한남동의 소름을 정리하고 스토어, 다이닝, 호텔이 망라된 디앤디파트먼트 제주의 전체 조경과 관리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곳에 매장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이름 따라간다면 파도식물이 바다를 건너 섬이네요. 씨앗은 어디에 도착할지 알 수 없고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희 또한 현재 있는 곳에서 어디까지 실험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를 즐기며 활동하는 중입니다.” 이제 파도식물은 외식사업에까지 그들의 감각과 경험을 나누고 있다. 100평 공간에 가득 찬 식물들.

03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구호’와 ‘리조트 블루’를 테마로 전시를 진행했다.

04
업사이클링 브랜드 ‘프라이탁’과 협업해 진행한 파도식물의 전시 모습.

그 사이에서 속 편하고 따뜻한 요리, 대화의 온도를 높여주는 음료가 있는 ‘용기’라는 이름의 공간을 오픈했다. “식물이 가득 찬 작업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셨던 소중한 아름다운 경험, 식물과 함께하는 저희 라이프스타일을 제주에서 풀어놓고 싶었습니다. 나아가 차츰 전시, 공연, 편집숍, 농민장터, 내추럴 와인숍 등 다양한 방식과 영역으로 펼쳐 나갈 계획도 있고요.” 숲에선 누구나 즐겁다. 하지만 매일 숲에 머무르는 어려워 우리는 집안에 식물을 들고 작은 일상의 위로를 찾는다. 파도식물은 우리의 인식처가 되어주는 숲에 그들의 감각을 더해 전해준다. 추운 겨울이지만 숲에서의 따스한 만남이 그림다면 제주의 두 푸른 젊은이가 반겨주는 파도식물에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



걸으며 깨닫는 것들

서울숲

가끔 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잠결에 몸을 뒤척이듯,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날. 한 걸음씩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꼭 멀리 나설 필요도 없다. 우리에게겐 서울숲이면 충분하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서울숲컨서번시

목적 없이 걷기만 해도

유독 하루가 힘겹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 무엇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날. 난데없이 감정의 기복이 커지며 심적으로 고갈되곤 한다. 그간 잘 살아왔다고, 잘 견뎌왔다고 자만해왔건만, 실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닳아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아닌 산책이다. 슬픔이나 우울감에 사로잡히면, 몸과 마음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일종의 마음 몸풀기가 필요한 셈이다. 익숙한 동네 주변도 좋지만, 탈이 난 마음을 위해서라도 인근 숲으로 향해보는 것도 좋겠다. 우리에게 서울숲이 있으니니까.

도보로 분당선 서울숲역 3번 출구에선 약 5분, 2호선 독섬역 8번 출구에선 10여 분이면 서울숲에 닿는다. 아무리 겨울이라지만, 너무 공공 싸맬 필요는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몸에 열이 오르면서 자연스레 추위가 가실 테니까. 그러니, 우선 걷는 게 중요하다. 서울숲으로 향하는 길, 굳어졌던 몸을 길들이듯 천천히 걸어 본다. 저 건너로 서울숲이 힐끗 보인다. 벌써 몸과 마음이 기운을 차리는 것 같다.

서울숲은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공원. 두 번째는 생태숲. 세 번째인 체험학습원과 마지막으로 습지생태원이 있다. 서울숲 주차장을 입구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바로 문화예술공원이다. 서울숲 방문자센터를 지나 왼편으로 크게 돌아 나오면 문화예술공원 전체를 둘러볼 수 있다.

걷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에 얹힌 근심이 점차 분명해진다. 크고 작은 고민, 사소한 문제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차츰 선명해지며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감정이 무너지고, 스스로가 조금 열어진 기분이 들 때, 애써 감춰왔던 불안이 슬며시 고개를 내밀 때, 삶이 막막하고 위태로워질 때, 우리는 걸어야 한다. 노트에

고민을 적듯, 숲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집중해 걸으면 우리는 우리를 더 잘 알게 될 테니까. 그렇게 걸음마다 삶에 배겨 있던 불필요한 문제를 떨쳐내다보면, 삶이 조금은 간소해진다. 실은, 별문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이게 된다. 때론, 걷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 나만의 보폭으로 가볍게 걸으며, 무거운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 보자.

문화예술공원의 중심부를 따라 들어가면 서울숲 내부에 흐르는 물줄기를 만날 수 있다. 얇은 수심의 물줄기는 서울숲 곳곳에 찰싹처럼 뻗어 있다. 서울숲 광장을 지나 처음 맞는 시냇가의 초입에는 거울 연못이 자리 잡고 있다. 수심 표면에 주변의 경관이 힐끗 비추어 거울 연못이라 불린다. 기온이 푹 떨어진 겨울인지라, 살얼음이 끼어있다지만 그런대로 제법 운치 있다. 얇게 언 연못 위로 소박하게 쌓인 눈이 도리어 겨울 분위기를 거둔다.

다시 돌아올 길이 있다는 것

시냇가를 가로질러 나오니, 수변 쉼터에 도착한다. 서울숲 문화예술공원은 거의 다 둘러본 셈이다. 어디로든 목적지를 두지 않으면, 도통 걷지 않던 내게 산책은 걷기의 의미를 되돌아보도록 만들었다. 나만의 속도와 균형으로 살아간다는 것. 익숙한 보폭과 리듬으로 걷고, 때로는 멈추고, 주변 풍경을 둘러보면서, 흐리했던 내 몸과 마음은 어느새 또렷해지고, 온전해졌다. 응어리처럼 뭉쳐있던 불필요한 삶의 문제들을 비로소 떨쳐낼 수 있었다. 어스름이 진 초저녁, 서울숲을 걸으며, 나는 나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걸은 만큼, 나는 더욱 나다워졌다.

저 건너편으로, 지나왔던 길의 초입이 가까스로 보인다. 도망치듯 들어왔던 서울숲의 입구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제법 먼 길을 걸어왔더니, 기분 좋은 허기가 밀려든다. 배는 고파도, 몸은 도리어 더 가볍다. 집으로 향하는 길, 허기를 달랠 간단한 음식 거리를 사든 채 다시 또 걷는다. 이렇게 하루는 저물어간다. 참으로 자연스럽다. ☺



서울숲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계절이 지나가듯 마음의 무게도 가벼워진다.



한겨울의 깊은 맛

꽃감과 홍시

‘꽃감이 맛있어졌다는 건, 겨울이 깊어졌다는 뜻’
영화 ‘리를 포레스트’에서 고향에 돌아온 김태리는 단감을 깎아
집 처마에 주렁주렁 매달며 겨울을 맞는다. 꽃감과 홍시가
한창 맛이 든 요즘, 이를 이용한 달달하고 심플한 레시피 소개.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Studio KENN



영상으로도
만나보세요!

꽃감필렛마카롱

크림치즈 30g, 무염 버터 10g, 설탕 10g, 반건조 꽃감
반개, 마카롱 꼬꼬 3세트 (마카롱 3개 분량)

만드는 법

- ① 크림치즈와 버터, 설탕, 꽃감을 블렌더에 넣고 갈아 필
렛을 만든다.
- ② 필렛을 찢주머니에 넣고 꼬꼬 위에 둥글게 돌려가며 짜
준다.

※ 꽃감의 씹는 맛을 느끼고 싶다면 꽃감은 동시에 갈지 말고, 칼로
다져서 따로 넣어도 좋다.



영상으로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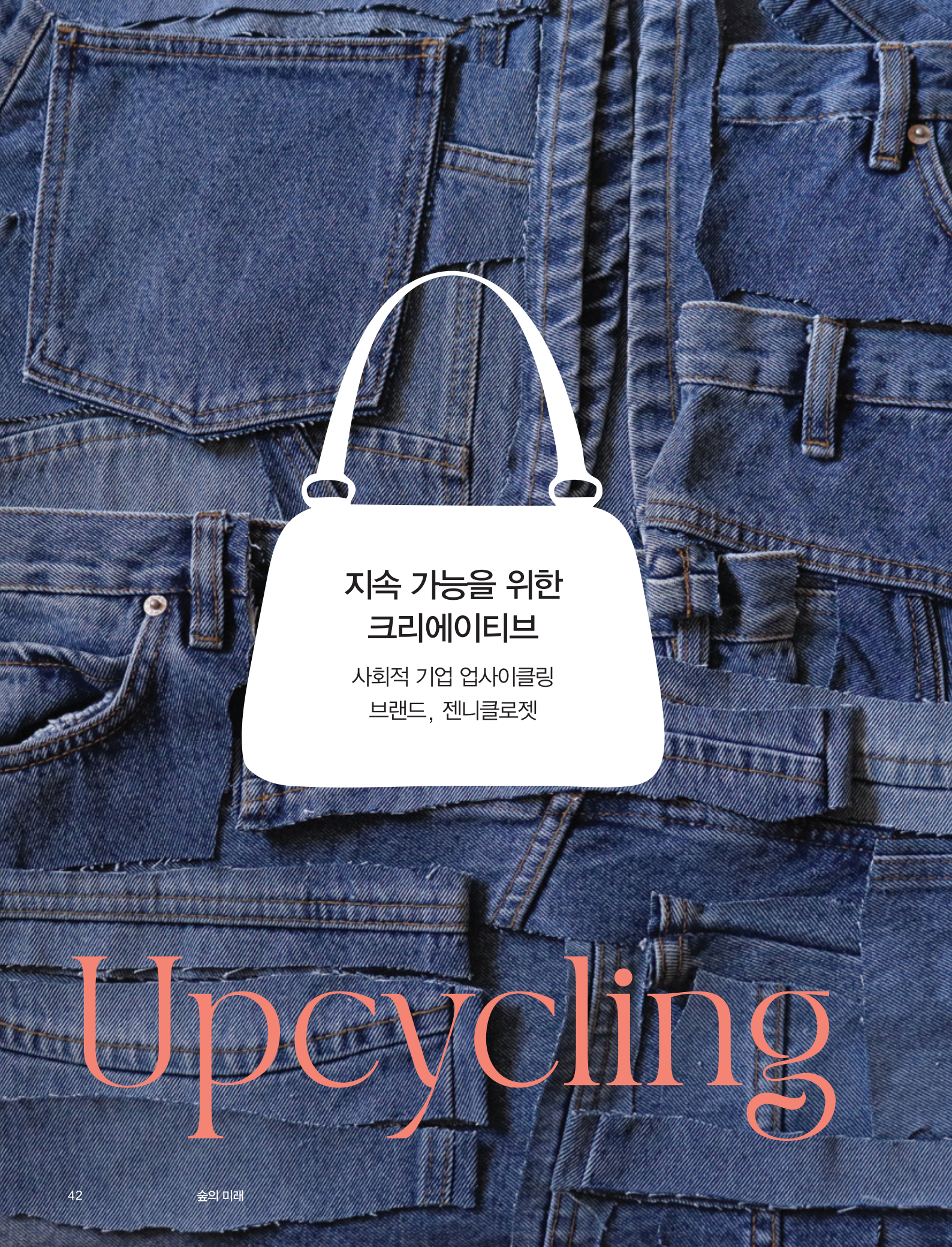
홍시티라미수

홍시 1개, 카스텔라 1쪽(1cm 두께), 마스카포네 60g,
계란 1개, 설탕 10g, 생크림 25g

만드는 법

- ① 계란 노른자에 설탕을 녹이며 잘 섞어준 뒤 마스카포네
와 휘핑크림을 섞는다.
- ② 계란 흰자로 머랭을 만든 뒤 2에 섞는다.
- ③ 카스텔라를 컵 모양대로 둥글게 잘라둔다.
- ④ 컵의 바닥에 홍시를 넣고 그 위에 잘라둔 카스텔라를
덮어준다.
- ⑤ 그 위에 크림과 홍시를 층층이 올린 뒤 코코아 가루를
체에 내려 마무리한다.

※ 취향에 따라 카스텔라에 커피를 부어도 좋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사회적 기업 업사이클링
브랜드, 젠니클로젯

Upcycling

우리가 헌 옷 수거함에 버린 의류는 선별 작업을 거쳐 약 5%는 국내 구제 옷 시장으로, 나머지는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된다. 이렇게 바다 건너 개발도상국에 도착한 옷이 판매되는 시장 뒤편에는 의류 쓰레기가 산을 이룬다. 이 많은 옷을 만들고 버리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연간 120억t.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엔 패션산업이 배출하는 탄소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4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행에 민감하고 패셔너블하다는 것이 곧 유행이 지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지나가고 외면되는 것에 창의력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젠니클로젯이 있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젠니클로젯

어제의 낡음이 오늘의 새로움으로

국내 대표 업사이클링 브랜드 '젠니클로젯(www.zennycloset.com)'은 '어제의 낡음이 오늘의 새로움'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사회적 기업이다. 이 회사의 대표인 이젠니 디자이너는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 금방 버려지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의 개성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

어릴 때부터 옷 만들기를 좋아하던 이젠니 디자이너는 2010년 옥수수 껍질과 재생 가죽을 엮고, 실크에 커피 염색을 해서 옷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옷으로 세계 녹색구매대회 에코패션 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 후 '에코 디자이너 숲'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를 내고 동네 사람들이 가져오는 한복이나 청바지 등으로 옷과 가방을 만들어 주었다. 그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이젠니 디자이너는 일반인에게 업사이클링을 가르쳐주는 '젠니클로젯'을 시작했다. 2013년엔 기부받은 데님

과 면, 리넨 등의 자연소재를 핸드메이드 기법을 활용해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는 동명의 업사이클링 브랜드 젠니클로젯을 론칭하기에 이른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청바지를 주목하다

젠니클로젯이 제일 먼저 내놓은 제품은 버려지는 청바지 원단으로 만든 노트북 가방이었다. 청바지를 선택한 이유는 염색 과정에서 인공 염료가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이었다. 또한 남녀노소 쉽게 업사이클링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젠니클로젯의 생각에 적합한 소재가 바로 누구나 옷장에 한 벌쯤 가지고 있는 청바지였다. 하지만 원단 그대로 만든 가방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 청바지로 더 자주, 더 오래 쓸 수 있는 튼튼한 가방을 만들고 싶어 고민했다. 그러던 중 우리가 흔히 가죽으로 알고 있는 명품 가방의 소재가 동물 가죽이 아니라 캔버스를 코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코팅 기술이면 버려지는 청바지가 가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관련 전문가를 찾아다녔고, 8년이 지난 지금 젠니클로젯은 데님 업사이클링 가족을 이용한 가방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협약을 맺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청바지를 기부받았다. 젠니클로젯의 노력으로 환경 오염의 결과물인 청바지가 그대로 버려져 또다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업사이클링 된다. 또한 가족 때문에 죽임을 당할 동물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골프존, 이케아, 나이키 등과 손잡고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젠니클로젯의 콜라보 라인인 우리가 특히나 주목하는 다양한 기업들과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만들기 유망하다. 명품 브랜드 ‘샤넬’과 협업해 직원들의 유니폼 재고를 수거해 화장품 파우치를 제작하기도 했고 버려졌으나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어닝, 제작 과정에 수많은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청바지를 기부받아 다국적 가구 브랜드 ‘이케아’ 직원들의 유니폼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폐기할 점퍼를 이용한 점퍼백은 물론, 국내 최대 스크린골프 회사, ‘골프존’



1



2

젠니클로젯은 무엇보다 환경이 목표다. 이젠니 디자이너는 젠니클로젯이라는 브랜드 이름만 들어도 환경을 떠오르게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3



과 협업의 페스크린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골프백을 제작하기도 했다. 미국 디자이너 브랜드 ‘캠빈 클라인’의 물류창고에서 버려지는 소각 제품을 고객 증정용 에코백을 제작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불량 원단은 그대로 폐기되는데, 그 원단을 소각하는 대신 여름철 시원한 느낌을 주는 베개로 만들어 독거노인에게 기부하기도 했다. 아무리 업사이클링 제품이라고 해도 젠니클로젯은 무턱대고 만들지 않는다.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제품이든 최소량만을 우선 생산한 뒤 소비자의 반응을 보며 고민한 뒤 추가 생산을 결정한다. 또한 사용하다 싫증이 난 젠니클로젯의 가방을 가져오는 고객에게는 캐시백을 적립해 준다. 그리고 수거한 가방은 고객을 대신해 원단과 부자재를 분리해 배출한다. 환경을 위해 고객의 번거로움을 기꺼이 도맡는 것이다.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대량생산을 결정하고, 소비자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빠르게 폐기하는 패스트 패션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 01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청바지로 남녀노소 손쉽게 업사이클링에 참여할 수 있다.
- 02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서 폐기할 점퍼를 기증받아 가방을 제작했다.
- 03 스크린골프 회사 ‘골프존’의 페스크린을 이용해 만든 가방.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젠니클로젯은 무엇보다 환경이 목표다. 이젠니 디자이너는 젠니클로젯이라는 브랜드 이름만 들어도 환경을 떠오르게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환경 단체에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일회적인 이벤트보다, 친환경적이고 착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업사이클링 관련 사업은 빠르게 성장중이다. 여러 패스트 패션 브랜드도 재활용 캠페인을 펼치며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젠니 대표가 목표에 다다르기까지 그리 멀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고산 우림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숲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많은 동물의 생존이 위협받다는 뜻이기도 하다. 동식물의 위험은 그대로 인간에게 돌아온다. 바로 지금이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시기인 동시에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주목해야 할 때다. ☺

바쁜 일상 속에서 점차 자연에 굶주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과 회사를 오가는 반복된 생활에 지친 탓입니다. 햇빛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소중한 모습들을 놓치며 살아가기엔 너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생각합니다. 일상에 숲을 들이기로요. 산림청의 실내 정원 이야기 지금 들어볼까요.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숲

계절이 열두 달을 건너는 동안 숲은 자연스럽게 피고 물들고 집니다. 숲은 계절이 머무는 자리마다 어김없이 그 흔적을 남겨 놓죠. 나뭇가지에 얹힌 흰 눈과 사뭇 수척해진 숲의 모습을 보곤 겨울을 실감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처럼 숲은 늘 우리보다 먼저 계절을 알아차리고 시시각각 그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숲은 늘 제철입니다. 우리가 자주 숲으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일상에 치이나 고단한 당신에겐 숲으로 향하는 것조차 힘든 일이겠죠. 자연에서 보내는 고요한 시간이 그림긴 해도 당장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서가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간만 허비하는 괜한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숲이 일상 안으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잠시라도 자연의 위안을 얻을 수

01

아산 중앙도서관에 조성된 실내 정원.

있다면 푸석했던 삶이 조금은 더 활력 있게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여전히 자연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도심 생활자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은 인간의 인지와 심리에 뚜렷한 영향을 남깁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연을 접하면 창의성이 향상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대인에게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한 이유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겪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해소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있죠. 자연은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스트레스로 인한 주의력 결핍과 과도하게 예민해진 감정을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자연은 현대 문명에 유익합니다.



1



2



3

02

부산 서면역 환승통로에 조성된 실내정원.

03

춘천시청 2층에 마련된 실내 정원 모습.

도심에 숲을 심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연을 즐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잘 보존된 자연을 찾아 감상하고 누리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꼭 멀리 나설 필요도 거창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죠. 그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 정원을 들이고 도심 곳곳에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쉽게 식물을 접하고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입니다.

우선 산림청은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정원’이라는 비전 아래에 2025년까지 약 5,30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 숲 및 실내 정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식 공간의 필요성과 및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오염 등 숲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그 대안으로 체계적인 생활권 숲 조성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미세먼지 발생지 인근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이나 생활권 내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실내 정원 등 조성된 녹색 공간의 역할과 주제도 다양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숲의 필요성이 커지고 다양해진 만큼,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반영한 결과입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한 공기정화 식물을 벽면에 심는다면, 방문객이 자주 찾는 복합문화공간에는 지역적 특색을 살린 시설 조형물과

함께 관엽 식물을 활용해 조형미를 살려 디자인함으로써 지역 홍보와 식막한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죠.

그뿐인가요. 단순히 녹색 공간의 확대에만 그치는 게 아닌 건전한 정원산업 육성과 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 및 문화 개선에도 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산업의 성장 역량 강화와 함께 연령대별·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정원 문화의 확산과 정원 생태계의 선순환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산림청은 현재 2025년까지 생활 밀착형 정원을 375곳에서 2,200곳으로 확충하고, 정원 문화 참여자를 현재 연 218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정원 산업 규모를 1조 2,500억 원에서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모두가 생활 속에서 정원을 누리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말이죠.

바쁜 현대인들에게 자연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뚜렷한 목적 없이도 자주 숲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까닭에, 산림청은 숲을 일상으로 들였습니다. 도심 속을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잠시나마 작은 위로를 얻고 나아가 식물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건전한 정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애초부터 사람과 자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산림청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일상이 더욱 푸르게 번지길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조정숙
부산시 기장군



매번 표지 일러스트가 숲과 꽃의 아름다움을 생생히 느낄 수 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이번 호엔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포인세티아가 너무 예뻐합니다. 기사 중에는 숲에 깃든 이야기에서 소개한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책 소개가 감명 깊었습니다. 저도 사서 읽어 보고자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전국의 아름다운 식물원과 숲길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남희
충남 당진시



생목을 이용한 트리 만들기 기사가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숲에서 나는 건강한 임산물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오늘의 한 끼 기사도 좋았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 숲을 담은 국가대표 청정 임산물, 맛있는 재료의 향연에 다음 편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임산물의 소개와 그 재료를 이용한 레시피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김상인
광주시 북구



〈매거진 숲〉은 잊혀져가는 나만의 정서적인 공간을 되살려주는 힐링의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자연을 간직한 비밀정원, 죽도 상화원'이 가장 좋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는데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장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 등 자기만의 독특한 공간에 사는 사람들도 소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 〈Mag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독자 엽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 호 여섯 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송경희
경기도 성남시



어릴 때부터 숲이 좋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숲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매거진 숲〉의 정성이 담긴 표지부터 모든 기사가 좋습니다. 또한, 이번 호에 소개된 죽도 상화원을 보며 채워질 기보다 비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히 기사 중 한 해 삶의 숨 고르기, 그래서 섬으로 간다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박향숙
경기도 오산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를 완등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님의 기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의 도전하는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던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또한 엄홍길 대장님의 기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아
울산 중구



올 한해도 〈매거진 숲〉을 통해 힐링의 순간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숲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이야기와 공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많은 위로와 공감을 얻었습니다. 새해에도 독자들의 편안한 벗이 되길 응원합니다. 이번 호엔 환경을 지키고 산림의 가치를 확장하는 목조 건축 기사가 유익했습니다. 무해하고 따스한 공간의 이점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숲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두 달간 산림청에 있었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산림청은 2022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 보고를 1월 5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2022년에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소득 보조사업 이렇게 달라졌어요!



산림청은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하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정보공개/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 선언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환경·임업 단체를 포함한 '산림 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을 확정하였다.

초대형 헬기 신규 도입 등으로 진화체계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산림청이 초대형 헬기 신규 도입과 노후 차량 대규모 교체 등을 통해 산불 진화체계 전력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최근 변화하는 산불 양상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2022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산불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당신만을 위한 치유공간

아트테라피



아트테라피를 채색하여 그림을 완성해보세요.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대변인실 <매거진 숲> 편집부 앞

3 5 2 0 8

요금수취인
후 납 부담
발송유효기간
2016.10.13 ~ 9999.12.31
대전둔산우체국
제40198호

우리는 집에 숲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분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작은 숲을.



2022 1+2월호 독자의견

이름

성별 ☐ 여성 ☐ 남성

나이

연락처

전화

이메일

1.이번 호를 읽고 난 소감을 적어주세요.

2.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3.이번 호에서 가장 아쉬웠던 내용과 이유는?

4.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매월 말일까지 엽서 또는 이메일
(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 숲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